

폭설로 수도권·강원 등 교통마비... 위기경보 '주의' 상황

항공기 18편·선박 5척 운행 취소
국립공원 4곳, 131개소 출입 막혀
오늘까지 최대 10cm 적설 예상
중대본 중심 안전관리 만전 기할 것



새해 첫 폭설로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전국 곳곳에 교통이 마비되고 하늘길과 뱃길마저 끊겼다. /뉴시스

새해 첫 폭설로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전국 곳곳에 교통이 마비되고 하늘길과 뱃길마저 끊겼다. 북한산 등 일부 국립공원의 출입도 통제됐다.

5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많은 눈으로 인한 기상 악화로 사전 결항한 15편 포함, 항공기 18편의 운행이 취소됐다. 무안 9편, 제주 3편, 김해 2편, 청주 2편, 김포 1편, 원주 1편 등이다. 또, 백령-인천, 군산-여흥 등 5개 항로 선박 5척의 발이 묶였다.

북한산과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국립공원 등 4개 공원에서는 131개소의 출입이 막혔다. 일부 북한산로 구간 도로도 통제됐다. 현재까지 인명 및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행안부는 수도권·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됨에 따라

오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서울시의 경우 비상근무 1단계를 유지한채 제설작업에 인력이 총 동원됐다.

1단계 비상근무 발령에 따라 시, 자치구, 시설공단 등 33개 기관은 인력 5245명과 장비 1493대를 제설작업에 투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을 통해 "대로뿐 아니라 언덕길 등 취약 결빙 구간도 꼼꼼히 챙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지난 밤 10시부터 대설대비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했다.

이날 오전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을 때는 제설작업에 인력 1723명과 장비 1124대가 투입됐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전 지역에 제설작업을 살포하고 보도 이면도로 제설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눈은 6일까지 이어져 경기·강원 3~10cm, 서울 3~8cm, 인천 1~5cm 등의 적설이 예상된다. 특히 7일부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내린 눈으로 도로가 결빙돼 교통과 보행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대설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본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자체는 적설취약시설을 지속 예찰하면서 대설 상황에 따라 선제적 주민 대피 및 위험지역 통제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기상 상황을 확인해 적설로 인한 붕괴·전도 등 위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순천시

겨울철 전지훈련 최적지 '인기'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교운동부와 전문실업팀을 대상으로 겨울철 전지훈련을 유치해 축구, 야구, 유도 등 7개 종목, 100여개 팀, 연인원 2만1000여 명의 선수가 전지훈련을 실시한다.

시는 사계절 잔디구장인 팔마주경기장, 유소년축구장 등 7개의 축구장과 2개의 야구장, 18면의 테니스장, 9면의 소프트테니스장 등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온화한 겨울 기온 덕분에 선수들이 부상 위험 없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수도권에서 3시간 이내 이동이 가능하고, 경기장 주변에는 숙박시설, 음식점,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겨울철 전지훈련 장소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완도군

고금 덕암산에 생태공원 조성

전남 완도군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생태 휴식 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 고금 덕암산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

사업은 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휴식과 힐링할 수 있는 치유 공간을 제공하고자 고금 덕암산 일대에 숲속 무대, 유아 생태 놀이원, 오색 초화원, 숲속 오두막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새벽, 저녁에도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야간 조명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목포시(박홍률 시장)가 시청 중앙현관에서 전직원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자들에게 감사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목포시

목포시, 2년째 고향사랑기부제 목표 달성

지난해 6억9400만원 모금
지역 답례품 95개 제품 제공

목포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연속 목표 모금액인 5억 원을 초과 달성하며, 2024년도 6억94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도 모금액 5억 6700만원 대비 22%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이 같은 성과는 목포시민과 전 직원이 함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기반으로 홍보대사가 되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첫 기금사업으로 시행한 '보

호종료아동 교육비 지원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며 기부자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다.

더불어 답례품 분야에서는 목포의 대표적인 지역 답례품인 홍어와 김, 해상케이블카 탑승권, 밥통존데기를 비롯한 60개 업체, 95개 제품을 제공하며 모금 활성화에 기여했다

시는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더욱 집중하여 2025년에는 ▲자립준비청년 교육비 지원 ▲공동생활 가정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등의 5개 기금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포항시, 대규모 공원 조성에 5186억 투자

환호·학산·상생공원... 총 207.3만㎡

포항시가 대규모 공원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과 글로벌 도시 이미지를 높인다. 시는 민간 공원 특례 사업으로 3개 공원(환호·학산·상생공원)의 터 207만3425㎡에 총 5186억원을 들여 대규모 공원을 조성 중이다. 지난 2022년 5월에 환호공원을, 8월에 상생공원을, 11월에 학산공원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환호·두호·장량동 일대에 조성되는 환호공원은 오는 10월 준공할 예정이다. 애초 스페이스워크 남쪽 56만㎡ 터에 민간 공원 특례 사업으로 77만㎡를 추가해 133만㎡의 대규모 공원을 만들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식물원, 중앙 공원, 책 읽는 숲 등이 있다.

식물원은 다양한 수종의 수목들과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국내 최대 규모



포항시가 '환호·학산·상생 공원'의 터 207만3425㎡에 5186억 투입해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의 바오밥나무, 흑관수 등 희귀종을 사계절 즐길 수 있다.

학산동 일원에 조성 중인 학산공원은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36만㎡의 터에 너른 마당, 거울 정원, 사계절 정원 등으로 꾸미고 있다.

대이동 일원에 조성하는 상생공원은 오는 2027년 9월 준공 예정으로 95만㎡ 터에 국민체육센터, 워터·갤러리 프라자 등 다양한 체육 공간을 마련한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거창군, 상하수도 요금 연차적 인상

5년간 年 상수도 10%, 하수도 15% ↑

경남 거창군은 오는 15일 지방상하수도 사용분부터 매년 상수도 요금 10%, 하수도 요금 15%를 5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거창군은 상하수도 요금 인상 이유로 연이은 손실과 낮은 요금 현실화율을 들었다. 이번 인상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군에 따르면 상하수도 수도물 생산, 각종 시설물 운영·개보수, 노후 상수관망 교체, 하수처리장 증설 등 필수 사업을 위한 지출에 비해 요금 수입

이 턱없이 낮아 매년 당기 순 손실액이 약 60억원에 달한다.

특히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 비율을 나타내는 요금 현실화율이 상수도는 34%(전국 평균 73%), 하수도는 5.5%(전국 평균 46%)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상수도의 생산원가는 1t당 2240원이지만 공급 요금은 761원으로 경남도 내 13개 상수도 공기업 중 12위에 해당하며, 하수도의 경우 1t당 처리 원가는 3741원이지만 처리 요금은 207원에 불과해 도내 11개 하수도 공기업 중 10위다.

/거창(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해남군 "걷기 편한 땅끝마을 오세요"

무장애 걷기길 '땅끝 꿀길랜드' 조성

전남 해남의 땅끝마을에서 땅끝탑까지 계단이나 경사지 없이 누구나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길이 조성됐다.

해남군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무장애 걷기길 '땅끝 꿀길랜드' 조성이 4개월 여간의 공사 끝에 최근 완료했다.

땅끝관광지는 조성된지 30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되고 땅끝탑까지 가는

일부 구간은 계단과 경사지로 조성돼 있어 노약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롭게 조성된 땅끝 꿀길랜드는 땅끝 모노레일 승강장에서 출발해 땅끝탑까지 이르는 길이다. 이번 공사를 통해 350여 m 산책로를 보행이 편하게 정비하고 도중에 관광객이 쉴 수 있는 쉼터와 포토존,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는 파격터를 설치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안동시

재활용 회수율 '전국 최고'

경북 안동시는 지난해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전국 최고의 재활용 회수율(90% 이상)을 달성했다. 시에 따르면 선별한 재활용품 2700t을 판매해 6억30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재활용품 매각 수익을 품목별로 보면 플라스틱류 4억4000만원, 잉곳(스티로폼 덩이) 9300만원, 캔·고철류 4300만원 기타(병류, 파지) 5400만원 순이다.

/안동(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